



## 회장 임기를 대과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전국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 덕분

오늘 이 자리에 서니, 3년 전 이 자리에 섰던 날이 생각납니다. 또 지난 3년간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점업제한 폐지 저지를 위하여 국회 건설교통위원들을 만나기 위해 동분서주 했던 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정산제도 도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했던 일, 기계설비 업역확대, PQ감점제도 폐지 등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또 여러 모로 부족한 저이지만 여러 가지 성과와 함께 회장의 임기를 대과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 이 모두가 전국 회원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3년간의 임기가 끝나고 보니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제 성심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뒤돌아 보게 됩니다.

특히 개별법 제정의 사업목표만 세워놓고 추진은 다음 집행부에 넘기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지만, 강석대 회장께서 서울시회 회장 재임시절 보여 주셨던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업계와 협회를 더욱 발전시켜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또한 우리업계의 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제7대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모든 역량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원 여러분께서도 더욱 큰 성원과 사랑을 제7대 집행부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불태우던 정열을 가슴에 안고 본연의 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3년간 회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던 시절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3월 12일

대한설비건설협회 명예회장 박종학